

[특집]

「모든 형제들」에 나타난 사회교리 원칙들*



방 종 우

[가톨릭대학교 윤리신학 교수·신부]

1. 서론
 - 1.1. 「모든 형제들」의 배경과 소개
 - 1.2. 방법론적 전제
2.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요 사상
 - 2.1. 세속의 자유에 대한 부정적 시각
 - 2.2. 교황의 사상 안에서 나타나는 자유
 - 2.3. 불균형한 자유로 인한 구체적 문제들
 - 2.3.1. 가난한 이들과 부자들 사이의 불균형의 문제
 - 2.3.2. 인간의 주변 환경 문제
 - 2.3.3. 무관심과 가정의 문제
3. 「모든 형제들」에 나타난 사회교리 원칙들
 - 3.1. 구조 및 내용
 - 3.2. 구체적인 사회교리 원칙들
 - 3.2.1. 연대성
 - 3.2.2. 보조성의 원리
 - 3.2.3. 재화의 보편적 목적
 - 3.2.4. 공동선
4. 결론

1. 서론

1.1. 「모든 형제들」의 배경과 소개

2013년 베네딕토 16세의 사직 이후, 새로운 교황 프란치스코가 후계자로 선출되었다. 경제 및 사회적 문제들이 라틴아메리카를 지배하던 당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추기경이었던 호르

* 이 글은 2021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해 마리오 베르골리오(Jorge Mario Bergoglio)였다. 21세기에 이르러,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경제위기와 재정파탄에 직면해야만 했다. 특별히 아르헨티나는 2001년 12월에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겪었으며 수많은 가정이 어려움에 빠졌었다.¹⁾ 이에 베르골리오는 어떻게 불평등이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를 훼손하는지를 분명히 시사해 왔고, 구조적인 문제를 알리기 위하여 탐구했던 추기경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활동한 바대로, 새롭게 선출된 교황은 격변하는 현대의 조명 아래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에 대해 수많은 대화들을 수행했으며, 새로운 역할 안에서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을 만났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더욱더 많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적인 대화들을 시도했다. 무엇보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자비로울 것을 요청했으며, 교회의 사명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그들에게 나가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였다.²⁾

이렇듯 교황은 현대의 문제들과 더불어 교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의 백성의 슬픔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격려의 말들을 제공해 왔다. 특별히 그는 현대 세계의 긴급한 상황과 이에 대한 윤리적 측면들에 관하여 눈에 띄는 관심이 있음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의 관심사는, “개인주의나 무관심이나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이들이 그 부끄러운 굴레를 벗어 버리고 더욱 인간답고 고귀하고 유익한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으로 지상에서 품위 있게

1) 2001년에 발생한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아르헨티나의 외채 문제로 인하여 비롯된 사건이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815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채무에 디폴트를 선언하였다. 이 외에도 1998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주교로 취임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우 아르헨티나의 가장 변화한 중심지인 한편, 실업자는 15.4%, 주민의 1/3에 해당하는 약 440여만 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지였으며 거주자의 7%가 판자촌에 살 정도로 빈부격차가 큰 곳이었다. 참조: 권기수·박미숙, 「아르헨티나 채무 디폴트 사태의 경제적 영향과 향후 전망」, 『KIEP 지역경제 포커스』 42(2014/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쪽; Matthew Bunson(매튜 번슨), 『교황 프란치스코: 그는 누구인가』, 제병영 옮김, 하양인, 2013, 256~257쪽.

2) Cf. Kris Woll, *Pope Francis: Catholic spiritual leader*, Abdo Publishing, Minnesota 2015, 30~31.

살아가도록 도와주려는 것이었다”³⁾

이러한 현대의 문제들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온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마침내 그의 첫 번째 사회회칙인 「모든 형제들」⁴⁾을 발표하였다. 이는 2013년의 「신앙의 빛」⁵⁾, 2015년의 「찬미받으소서」⁶⁾ 이후 세 번째 회칙이며 앞선 회칙과 권고, 그 밖의 강론과 서한들을 통해 다양하게 표명해 온 사회교리 정신들을 심화시킨 사회회칙이다. 교황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 그는 언제나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련된 문제들”⁷⁾에 관심을 두었으며 이를 수차례 여러 장소에서 언급해왔다.⁸⁾

결국 「모든 형제들」은 지금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장해 온 사회교리 원칙들을 집대성한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인에게 요청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형제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키는 회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사회교리 회칙들을⁹⁾ 바탕으로 하되 현재의 상황 안에서 더욱 희미해져 가는 사회교리 원칙들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전통적인 사회교

3) 프란치스코,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4), 208항.

4)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

5) 프란치스코, 회칙 「신앙의 빛」(*Lumen Fidei*, 2013).

6)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

7)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5항.

8) 대표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3월 선출 직후, 불법 이민자들의 밀항지인 람페두사를 첫 방문지로 삼았으며 전 해 9월에 밀항선이 전복되어 사망한 튀니지 이민자들을 애도한 바 있다. 그는 이곳에서 ‘무관심의 세계화’를 비판하며 “현대인들이 이웃 형제자매들에 대한 책임감을 상실했다”고 호소하였다. Cf. Francesco, “Omelia del Santo Padre Francesco”(2013.7.8),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13/documents/papa-francesco_20130708_omelia-lampedusa.html(검색일: 2021.12.6).

9) 교황들은 현재까지 총 11개의 사회교리 회칙을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발표된 사회교리 회칙들은 다음과 같다. 레오 13세,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1891); 비오 11세, 회칙 「40주년」(*Quadragesimo Anno*, 1931); 요한 23세, 회칙 「어머니요 스승」(*Mater et Magistra*, 1961); 요한 23세,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 바오로 6세,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1967);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 1981);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 1991);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 1995);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

리 원칙들이 현대에 이르러 어떤 모습으로 적용되어야 할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세상이 나아가야 할지 다시금 일깨워주는 회칙이라고 할 수 있다.

1.2. 방법론적 전제

본 논문은 「모든 형제들」에 나타난 사회교리 원칙들을 통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들이 주목해 온 주제들을 살펴보고 현대 사회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전 회칙과 발언을 통해서 나타난 교황의 주요 사상을 다루고 사회교리 원칙들이 「모든 형제들」에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다루도록 할 것이다. 또한 회칙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통찰함으로써 전체적인 흐름 또한 짚어 낼 것이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본 논문은 결론을 통하여, 「모든 형제들」에 드러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핵심적 가르침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지, 전통적인 사회교리 원칙들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또한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요청되는 소명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실제로 이 회칙은 형제애에 관한 교리를 단순히 요약하는 것이 아닌, 형제애의 보편적 차원과 모든 이에 대한 개방성을 다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¹⁰⁾ 물론 이러한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회칙 전체가 “선의를 모든 이와 나누는 대화를 위한”¹¹⁾ 교황의 초대인 만큼, 그리스도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유의미할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이 회칙 안에는 여러 가지 사회교리 원칙들뿐만 아니라 신학적 쟁점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직신학적 주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짧은 논문에서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다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회칙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 안에서 나타나는 사회교리 원칙들에 집중하고 그 외의 주제들의 경

10)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6항.

11)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6항.

우 다음의 연구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다.

2.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요 사상

2.1. 세속의 자유에 대한 부정적 시각

「모든 형제들」이전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보면 그가 신앙의 부재로부터 야기되는 현대 세계의 문제들을 지금껏 다양하게 지적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이후의 사회를 바라보는 교황의 시선은 다분히 부정적이다. 그에 따르면 현대에 이르러 신앙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 무용한 것처럼 숙고된다. 그 결과, 자신의 합리성으로 자신만만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를 탐구하고자 열망하는 현대의 인간에게, 신앙은 허황된 빛으로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의 무분별한 합리성은 일시적인 순간은 비추지만 길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작은 빛들에 만족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율적인 이성의 빛이 미래를 비추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¹²⁾

이러한 관점 안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으로 있기를 초대한다. 그의 사상에서 자유란, 원하는 모든 것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자유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을 발전으로 이끄는 행동 양식이다. 즉, 자유는 현세의 유혹에서 벗어남으로써 항상 선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는 선을 통해서 자유롭다. 그

12) 교황은 회칙 「신앙의 빛」에서, 만약 인간이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믿어야 하지만, 만약 진리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탐구해야만 한다고 단언했던 니체의 선언을 기억한다. 니체는 이 관점에서부터 인간 실존의 충만한 의미를 축소시키며 인생의 새로움과 모험을 제거하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비판을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신앙은 빈 허공 속으로 뛰어드는 것, 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고 인간적인 위로를 줄 수 있는 주관적인 빛과 같이 이해되었다.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신앙의 빛」, 2항.

리고 비록 쉽지 않을지라도, 이 안에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나아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¹³⁾고 선언한다. 이러한 선언 안에서 우리는 세속의 자유에 대한 교황의 부정적인 시각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인간이 세속적인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것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불의에 특별히 민감하며, 공동선 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드는 사람들의 부패들에 자주 실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저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결코 용기를 잃지 말고, 신뢰를 잃지 말고, 여러분의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¹⁴⁾

삶 안에서 여러분의 길을 막으며 속도를 늦추라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발 현재의 흐름에 반대로 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현재의 흐름에 반대로 가십시오. [...] 현재의 흐름을 거슬러 간다는 것은 아름다움, 선함, 진리의 가치로 전진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의미합니다.¹⁵⁾

이처럼 세속의 자유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주의는 교황의 전반적인 사상을 이룬다. 물론 이것이 인간의 자유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진리에 대한 숙고가 없는 자유, 제한 없는 권한이 스스로의 권리라 생각함으로써 스스로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자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의 인간은 안전, 유용성, 복지, 생명력을 곧 절대적 선이라 여기게 되며 이러한 사고는 인간이 응당 실천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만든다.¹⁶⁾

13) Francesco, “Discorso del santo Padre Francesco agli studenti delle scuole gestite dai gesuiti in Italia e Albania”(2013.6.7),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3/june/documents/papa-francesco_20130607_scuole-gesuiti.html(검색일: 2021.12.15).

14) Francesco, “Discorso del santo Padre Francesco alla comunità di Varginha (Manginhos)”(2015.7.25),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3/july/documents/papa-francesco_20130725_gmg-comunita-varginha.html(검색일: 2021.12.15).

15) Francesco, “Saluto del santo Padre Francesco al pellegrinaggio dei giovani della diocesi di Piacenza-Bobbio”(2013.8.28),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3/august/documents/papa-francesco_20130828_giovani-piacenza-bobbio.html(검색일: 2021.12.15).

2.2. 교황의 사상 안에서 나타나는 자유

이렇듯 교황 프란치스코는 세속의 무분별한 자유를 부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인간이 참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시적이거나 현세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범을, 사도행전 5,34-42의 가말리엘과 베드로와 요한, 요한복음 6,1-15의 빵과 물고기로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다.

이 구절들 안에서 자유로운 첫 번째 사람은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다. 그는 중풍 병자를 고쳐줘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을 자유롭게 풀어주도록 최고 의회를 설득한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사도 5,38-39). 가말리엘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시간이 문제들을 해결해준다며 사람들을 설득한다.

자유로운 인간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느님께서 시간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는 자리를 내어줍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은 히브리인이었지만, 자유로운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체적으로 생각하며, 타인에게 그것을 제공하고 그것은 받아들여집니다.¹⁷⁾

이 지점에서 교황은 가말리엘과 빌라도를 비교한다. 빌라도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었으며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승진에

16)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105항.

17) Francesco, “Meditazione mattutina nella cappella della Domus Sanctae Martae: la vera libertà”(2018.4.13),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8/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80413_la-vera-liberta.html(검색일: 2021.12.15).

연연함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자유에 대한 용기가 부족했다. 그는 출세주의, 야망, 성공의 노예였기 때문이다.¹⁸⁾

베드로와 요한은 교황의 사상 안에서 자유의 두 번째 예로 나타난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그러므로 최고 의회의 앞에 끌려갔다. 그 후 부당하게 채찍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했음을 기뻐하며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사도 5,41).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고통 안에서 자유로웠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우리에게 다음의 지각을 가져온다. “주님, 주님, 당신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의 삶, 저의 생각, 저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모두 당신 것입니다.”¹⁹⁾

세 번째 예는 빵을 나누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다. 복음에 따르면, 이 기적 이후,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시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요한 6,15)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신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승리주의로부터 당신을 떼어 놓으셨으며 이 승리주의가 당신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분은 자유로우셨다.²⁰⁾

이러한 예들 안에서, 우리는 세속의 자유와는 다른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유의 개념을 인식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자유는 열정, 야망, 유행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완성된다. 다른 말로 선을 충실히 따르고 타인을 존중하는 자가 자유로운 사람이며, 반면 타인에 대한 숙고 없이 자신의 열정, 야망과 유행만을 따른다면 그는 노예가 된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노예의 유형은 현대에 만연하며 교황은 이러한 현상을 “정신분열증적 경향”이라고 부른다.

18) Cf. *ibidem*.

19) *Ibidem*.

20) Cf. *ibidem*.

오늘 나의 자유와 우리들의 자유에 대해 생각합시다. 가말리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자신, 이 세 가지 모범처럼 나의 자유는 그리스도교적인가? 나는 자유로운가? 아니면 나는 나의 열정, 나의 야망, 다른 많은 것들, 재산이나 유행의 노예인가? 농담 같이 들리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행의 노예입니까! [...] 이 세상이 조금은 ‘정신분열증적’이고, 정신분열증 환자 같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안에서 우리들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자유, 자유, 자유!’를 외치지만 더 노예, 노예,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이 자유에 대해 생각합시다.²¹⁾

2.3. 불균형한 자유로 인한 구체적 문제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세상을 “정신분열증적”이라고 부르는 교황의 발언은 세상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로 인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왔음을 의미한다. 그는 그러므로 현대 시대를 “위기의 순간”이라고 규정한다.²²⁾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은 자신의 회칙과 문서, 강론을 통해 이미 파생된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들을 지적해왔다. 가장 공통적으로 뽑히는 주제를 선별하자면, 가난한 이들과 부자들 사이의 불균형, 인간의 주변 환경 문제, 무관심과 가정의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²³⁾

2.3.1. 가난한 이들과 부자들 사이의 불균형의 문제

그의 첫 번째 문헌인 「복음의 기쁨」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특별히 가난함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더욱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한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나이 든 노숙자의 죽음은 기사화되지

21) *Ibidem*.

22) Cf. Francesco, “Udienza Generale”(2013.6.5),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udiences/2013/documents/papa-francesco_20130605_udienza-generale.html(검색일: 2021.12.15).

23) 이 밖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료는 다음을 참고할 것. Jorge Mario Bergoglio/Abraham Skorka(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아브라함 스코르카), 『천국과 지상』, 강신규 옮김, 울리시즈, 2013; Giuliano Vigini(줄리아노 비지니), 『교황 프란치스코, 자비의 교회』, 김정훈 옮김, 바오로딸, 2014.

않으면서 주가지수가 내려가는 것은 기사화되는 현실과,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것들은 현대 시대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거의 모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해 울어줄 수 없게 되었으며 타인을 도와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책임인 것처럼 말이다.²⁴⁾

물론 교황은 인간의 복지와 관련된 세상의 진보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는, “사람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를 들면, 건강과 교육과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분야에서 진일보하였다는 점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²⁵⁾고 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이 비참한 결과와 함께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부유하다고 일컬어지는 지역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즉 정신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기쁨이 자주 퇴색되고, 다른 이들에 대한 존중이 갈수록 결여되며, 폭력이 증가하고 불평등이 항상 증가한다.²⁶⁾ 이러한 상황의 현대인들은 존엄성을 잃어버릴지라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현대 사회의 성장이 언제나 온전한 발전과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표지이다. 또한 이러한 징표 가운데 일부는, 진정한 사회적 쇠퇴, 사회적 결속과 유대의 파괴에 대한 전형적인 징후이기도 하다.²⁷⁾

24) 참조: 프란치스코, 권고 「복음의 기쁨」, 53~54항.

25) 프란치스코, 권고 「복음의 기쁨」, 52항.

26) 참조: Michele Zanzucchi(미켈레 잔추키), 『돈과 권력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회 정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27~28쪽.

27) 참조: 프란치스코, 권고 「복음의 기쁨」, 53항;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46항.

2.3.2. 인간의 주변 환경 문제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운 문헌으로 평가받는다.²⁸⁾ 이 회칙에서 교황은 인간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필요를 기반으로 하는 변화를 위한 계획을 건설하지만 이러한 필요들이 탐욕과 이기적인 필요들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 과정 안에서 교황은 인간이 타인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며, 특별히 타인의 대상을 자연의 영역까지 확장한다. 우리는 자연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상호관계를 필요로 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배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성격의 이기적인 측면만큼이나 현실적이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동일한 도덕적 행위의 측면이며, 우리가 그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평화를 찾지 못한다. 환경은 인간이 사는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는 불가분하게 서로 이어져 있다.²⁹⁾

이런 전제로 시작하여, 교황은 이기주의적 자유에서 야기되는 기만적이고 그릇된 자본주의의 욕망과 인간 본성의 소비지상주의적인 면을 비판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한한 것이지만 필수불가결한 생존을 위한 인간의 욕구’와, ‘개인의 쾌락을 위한 끝없는 욕망’을 명백히 구분한다. 쾌락을 위한 욕망은, 다른 만족감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으며,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 사회 안에서 가난한 이들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동안, 부유한 이들은 이기주의적 자유와 같은 무의미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게걸스러운 삶을 향유한다.³⁰⁾ 이러

28) Cf. Editorial, “The Guardian view on *Laudato Si*: Pope Francis calls for a cultural revolution”, *The Guardian*, 18 giugno 2015,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5/jun/18/guardian-view-on-laudato-si-pope-francis-cultural-revolution>(검색일: 2021.12.15).

29)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117~121항.

30) 참조: 서상덕, 『교황 프란치스코 — 당신의 사랑이 세상을 웃게 합니다』, 끌레

한 불균형한 문화는 환경 파괴의 문제를 가져오며 특별히 더욱 가난한 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³¹⁾

이러한 비판은 현재 세계 질서를 변호하는 두 개의 진영: 환경문제에 대한 비관론자들과 낙관론자들을 모두 공격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구온난화가 분명하고 명백한 위험이라는 압도적인 과학적 합의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므로 그는 재활용이 가능한 연료의 사용을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요청한다. 그러나,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의지할 수도 있다는 점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방종한 욕구의 문제는 과학 기술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끝없는 욕망에 관한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이며, 그러므로 소비주의의 중독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자제와 절제를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윤리적 해결책이 요청된다.³²⁾ 이렇게, 불균형한 자유의 문제는 우리에게 환경의 문제를 가져오며, 이것은 공기와 땅, 물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파괴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기주의적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 자원을 무제한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이들은 그들이 타인을 죽이고 있으며 스스로를 해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³³⁾

2.3.3. 무관심과 가정의 문제

교황 프란치스코는 언제나 개인주의에서 오는 무관심의 죄를 경고하곤 했다. 무관심과 개인주의는 사회 안에 만연하며 이제는 절대적인 가치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에 연대성의 구체적인 표지들이 필요하며, 형제들의 필요에 관심이 없고 오직 스스로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삶에 반대하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요청된다”³⁴⁾고 선언한다. 무엇보다, 그의 공식적인 첫 방문지 람페두사

마, 2014, 90-93쪽.

31)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48~51항.

32)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109-111항.

33) 참조: Andrea Tornielli/Giacomo Galeazzi(안드레아 토르니엘리·자코모 갈레아치), 『이놈의 경제가 사람잡네 —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한 사람들을 위한 자비의 경제학』, 최우혁 옮김, 갈라파고스, 2016, 163쪽.

(Lampedusa)에서, 그는 무관심의 세계화를 비판하였다. “이 세계화의 세상 안에서 우리는 무관심의 세계화에 빠져버렸다. 우리는 타인의 슬픔에 습관화 되었고 그것을 보지 않고 관심이 없으며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여긴다.”³⁵⁾ 그에 따르면, “안락을 추구하는 문화는 오직 우리 자신만 생각하도록 한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사랑스럽지만 허상 가득한 비누거품 속에 살도록 한다. 그것들은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덧없고 공허한 망상에 빠져들게 한다.”³⁶⁾

이러한 이기주의적 현상은 숭고한 목적과 개인적인 수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유에 의해서 탄생된다. 그리고 이 지나친 개인주의는 가정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러한 개인주의와 무관심의 문화는 가족들의 연대를 약화시키게 되었으며 가정의 모든 구성원은 고립된 개체로 간주되게 만들었다. 소유와 쾌락에 사로잡힌 지나친 개인주의 문화에 의해 야기된 긴장이 가정 안에 편협함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위험들이 가정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가정은 자신에게 편한 것처럼 보일 때에만 머무르고 지나가는 장소, 또는 권리를 주장하려 가는 곳으로만 여겨질 수 있다.³⁷⁾

이러한 맥락 안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현대인들의 그릇된 자유에 대한 정의를 지적한다. 근본적으로 오늘날에는 참된 자유를 각 개인이 자기의 임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과 혼동하기 쉽다. 이는 마치 안내를 제공하는 진리와 가치, 원칙의 부재를 뜻하며 모든 것이 허용되고 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는 우리가 자신을 타인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없게 한다.³⁸⁾

34) Francesco, “Discorso del Santo Padre Francesco ai partecipanti giubileo degli operatori di misericordia”(2016.9.3),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6/september/documents/papa-francesco_20160903_giubileo-operatori-misericordia.html(검색일: 2021.12.15).

35) Francesco, “Visita a Lampedusa: Omelia del Santo Padre Francesco”(2013.7.8),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13/documents/papa-francesco_20130708_omelia-lampedusa.html(검색일: 2021.12.15).

36) *Ibidem*.

37) 참조: 프란치스코,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2016), 33~34항.

3. 「모든 형제들」에 나타난 사회교리 원칙들

3.1. 구조 및 내용

지금까지 「모든 형제들」이전까지의 교황의 회칙과 권고, 서한 등을 통해 교황의 기본 사상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의 주된 관심사가 사회적 주제에 머무르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그는 「모든 형제들」에서, 자신이 이러한 주제들에 관심을 두어왔으며 새로운 회칙을 통해 “그동안의 발언들 가운데 많은 것을 모아 더 넓은 맥락에서 성찰하고자”³⁹⁾ 했다고 고백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모든 형제들’이라는 제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복음을 실천하는 삶의 형태를 제안하는데 사용한 인용문으로, 장소와 공간을 뛰어 넘는 모든 인류를 대하는 교황의 태도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회칙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메시지는 각자의 인간이 어느 곳에 있든, 어떠한 민족에 속해 있든, 어떠한 인종이든, 모든 인류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동의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형제적 사랑으로 불리움 받고 있다는 것이다.⁴⁰⁾ 여기서 형제적 사랑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으로, “물리적 근접성을 뛰어 넘어 출생지나 거주지의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이다.”⁴¹⁾ 그러므로 이 ‘모든 형제들’이라는 어휘는 특정한 믿음 혹은 인식을 공유하는 그룹을 뛰어 넘는 것으로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보편 인류의 연대를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다시금 앞선 교황의 회칙과 권고들을 이루고 있는 주요 개념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가정,⁴²⁾ 공동의 집,⁴³⁾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는 성덕⁴⁴⁾

38) 참조: 프란치스코, 권고 「사랑의 기쁨」, 34항.

39)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5항.

40) 참조: 방중우, 「개인의 존재 안에서의 공동체성과 타자성: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214(2021/가을), 광주가톨릭대학교, 109쪽.

41)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1항.

42) 프란치스코, 권고 「사랑의 기쁨」.

43)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등의 주요한 개념들은 이제 ‘형제들’이라는 단어로 구체화되어 비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거룩한 소명으로 주어진다. 또한 최근의 교황의 발언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간 가족”(human family)이라는 단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⁵⁾ 모든 인류가 연결되어 있으며 공동의 공간과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의 사상이 매우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기조는 「모든 형제들」의 전체적인 주제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교리의 원칙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회칙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론(1~8항)에 뒤이어 제1장은 “달린 세상의 그림자”(9~55항)라는 제목을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룬다. 이 장에 따르면 세계는 지금껏 많은 전쟁과 실패를 겪었으며 그 결과 대륙의 모든 민족 간의 평화와 친교를 촉진하고자 협력했음에도 퇴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구시대적 분쟁, 폐쇄적이고 공격적인 민족주의, 국익 보호라는 허울에 가린 새로운 형태의 이기주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사회는 점점 세계화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서로 이웃이 될 뿐 형제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개인의 이익만 복돋을 뿐 삶의 공동체 차원은 약화시키는 시장 경제화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역사의식을 희석시킴과 동시에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보편적이지 못한 인권을

44) 프란치스코,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audate et Exultate*, 2018).

45) ‘인간 가족’(human family)은 세계인권선언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교황은 최근 특별히 이 용어를 자주 인용해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국제사회의 신념과 일치함을 드러낸다. Cf. Francesco, “Discorso del Santo Padre Francesco ai partecipanti al Congresso ‘Child dignity in the digital world’”(2019.11.14),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9/november/documents/papa-francesco_20191114_convegno-child%20dignity.html(검색일: 2021.12.15.); Francesco, “Lettera del Santo Padre Francesco al presidente della Pontificia Accademia per la vita in occasione del XXV anniversario della sua istituzione ‘Humana communitas’”(2019.1.6.),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letters/2019/documents/papa-francesco_20190106_lettera-accademia-vita.html(검색일: 2021.12.15.); Pontifical Academy for Life, “Rome Call for AI Ethics”(2020.2.28), https://www.romecall.org/wp-content/uploads/2021/02/AI-Rome-Call-x-firma_DEF_DEF_con-firme_.pdf(검색일: 2021.12.15.); Francesco, “Discorso del Santo Padre ai partecipanti alla Plenaria della Pontificia Accademia per la Vita letto da S.E. Mons. Vincenzo Paglia”(2020.2.28),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20/02/28/0134/00291.html#eng>(검색일: 2021.12.15).

탄생시키며 인간 존엄성의 침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현대의 인간에게 요청되는 것은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이며, 동시에 “우리를 서로 멀어지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일”⁴⁶⁾이다.

교황은 이러한 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모범으로 제2장 “길 위의 이방인”(56-86항)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5~37)를 제시한다. 이 비유에는 반대되는 두 그룹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타인의 고통과 상처를 지나치지 않고 도움을 주려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마리아인이다. 그는 멀리 받던 이방인임에도 고통 중에 있는 이를 형제로 여기고 그를 일으킴으로써 공동선을 일구어낸다. 한편 그 대척점에는 인간의 비참함을 마주하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의 태도를 보인다. 이 태도에는 자신에게만 몰두하거나 바깥만을 바라보려는 시선이 공존한다. 이는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루카 10,29)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인간 각각의 경계를 허문다. 유대인 혹은 사마리아인이라는 특정한 소속을 뛰어 넘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들은 진정한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된다.⁴⁷⁾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전해준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⁴⁸⁾

제3장과 제4장의 제목, “열린 세상을 상상하고 이룩하기”(87~127항), “은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128~153항)에서 알 수 있듯, 이제 교황은 ‘열린’이라는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법칙을 제시한다. 이를 회칙 본문의 한 줄로 요약하자면, “자기 자신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 안에서 존재의 성장을 찾는 탈아(脫我, ekstasis)의 법칙”⁴⁹⁾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목현장」에서

46)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53항.

47) 참조: 방종우, 「개인의 존재 안에서의 공동체성과 타자성: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을 중심으로」, 116~117쪽.

48)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80~81항.

정의하고 있는 바대로 인간은 그 본성상 사회적 본성을 지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각 개인은 고립된 소수 혹은 혼자만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 상호 의무, 형제적 대화 등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동시에 자기 소명에 응답할 수 있다.⁵⁰⁾ 또한 인간의 삶은 가족을 비롯한 소모임적 관계로만 축소될 수 없다. 현재의 사회뿐만 아니라 존재하기 이전의 사회, 이 모든 과거의 공동체들 없이는 현재의 개인이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은 결국 개인주의를 벗어나, 모두가 열려있는 마음으로 인간의 품위 있는 삶과 발전에 대한 권리를 위해 ‘연대’해야 함을 의미한다.⁵¹⁾

이어지는 5장과 6장에서 교황은 “더 좋은 정치”(154~197항)에 대해 정의함과 동시에 “대화과 사회적 우애”(198~224항)의 필요를 천명한다. 이 안에서 현대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와 기술을 포괄하는 정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⁵²⁾ 이러한 정치가 성실하게 수행될 경우 이른바 ‘우러나오는’(elicitio) 사랑이 가능해진다.⁵³⁾ 이것은 애덕에서 흘러나와 개인들과 민족들을 향하는 것으로 ‘보조성의 원리’를 상기시키는 부분이다. 한편 대화와 사회적 우애는 인간 모두가 새로운 문화를 함께 건설해 나가기 위해, 즉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진정한 사회적 대화는 다른 이들의 관점을 존중하는 능력을 전제로 하며 더욱 창조적인 방식으로 진리를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⁵⁴⁾

제7장, “새로운 만남의 길들”에서 교황은 마침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것은 진실을 바라보는 것,⁵⁵⁾ 특별히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⁵⁶⁾ 용서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것,⁵⁷⁾ 용서하되 잊지 않는 것⁵⁸⁾ 등이다. 또한 전쟁과

49)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88항.

50)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2002², 25항.

51)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37~138항.

52)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79항.

53)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86항.

54)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203항.

55)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225~270항.

56)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233항.

사형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이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해결책으로 비칠 수 있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므로 오히려 인간을 파괴의 길로 이끌 뿐이다.⁵⁹⁾

마지막 제8장의 제목은 “세상의 형제애를 위하여 봉사하는 종교”이다. 이제 교황은 ‘형제애’라는 주제를 한 번 더 강조함과 동시에 종교들 사이의 평화의 여정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형제애의 모범이 된다.⁶⁰⁾

회칙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 모든 성찰은 결국 교황의 호소를 통해 끝맺음 된다. 그리고 이 호소의 첫 단락은 본 사회회칙이 지닌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을 동등한 권리와 의무와 존엄성을 지니도록 창조하시고, 형제자매로 함께 살아가며 땅을 가득 채우고 선과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도록 모든 인간을 부르십니다.⁶¹⁾

3.2. 구체적인 사회교리 원칙들

세상 안에서 활동하는 교회는 그 사명과 본질의 힘을 통해 특정한 사회체제 혹은 경제에 얽매이지 않으며, 인간 사회 안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건전한 사회화의 과정과 일치할 향을 지닌 진보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인정하고 권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에서 나오는 온갖 예측을 배척하고 양심의 존엄과 정당한 자율성을 회복시키고자 애쓴다.⁶²⁾ 이러한 견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회칙 안에서 강조하는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는 결국,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인간의

57)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236항.

58)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250~254항.

59)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255항.

60)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279~280항.

61)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285항.

62)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41~42항.

한계와 약함과 무능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세상 안에서 선을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 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프란치스코 이전의 교황들이 여러 가지 사회회칙들을 통해 임기 내내 계속 추구해왔던 중요한 질문이자 과제이기도 하다.⁶³⁾ 그러므로 교황은 회칙 안에서 기존의 사회회칙들에서 드러난 원칙들을 재강조함과 동시에 이를 현대의 문제들과 함께 조명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그러한 면에서 교황에 의해 강조되는 사회교리 원칙들은 사실 기존의 사회회칙들에서 드러나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현재의 물질적 풍요의 사회 안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삶의 불평등’⁶⁴⁾과 ‘공허한 개인주의’⁶⁵⁾, 세계화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표면적일 뿐 내적인 일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인간의 ‘배타적 자유’⁶⁶⁾ 등의 현대적 문제를 사회교리 원칙들과 새롭게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본 장에서는 회칙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재강조 되어 나타나는 사회교리 원칙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교리 원칙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⁶⁷⁾ 「모든 형제들」 안에 각각의 모든 요소들이 드러나지만, 특별히 회칙 안에서 더욱 강조되는 주요 원칙들은 연대성, 보조성의 원리, 재화의 보편적 목적, 공동선 등이라 할 수 있다.

63) 참조: Saverio Gaeta(사베리오 가에타), 『교황 프란치스코 — 새 시대의 응답자』, 강선남 옮김, 성바오로, 2013, 63쪽.

64)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21항.

65)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3항.

66)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2항.

67) 가톨릭교회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인간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재화 사용의 보편적 목적의 원리, 책임과 참여의 원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참조: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간추린 사회교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160-208항.

3.2.1. 연대성⁶⁸⁾

연대성이란,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이 속한 사회에 빛을 지고 있다는 인식”⁶⁹⁾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인간과 사회 집단이 복합적인 유대 관계에 있음을 인지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공유와 참여를 통해 함께 성장하려는 정신이다.⁷⁰⁾ 이는 개인과 민족 간의 사회 윤리적 의존관계를 의미하기에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서 ‘사회적 애덕’, 바오로 6세에 의해서는 ‘사랑의 문화’라 일컬어졌으며 교회의 사회교리 가르침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⁷¹⁾

「모든 형제들」 안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사라져가고 있는 이 연대성의 정신을 지적함과 동시에 필요성을 강조한다. 회칙에서 드러나는 연대성에 반대되는 교황의 개념은 ‘해체주의’이다. 이는 인간의 자유가 무(無)에서 시작하여 모든 것을 이룬다는 주장으로 이에 남는 것은 무한한 소비 욕구와 공허한 개인주의뿐이다. 이 안에서 민주주의, 자유, 정의, 일치와 같은 덕의 개념은 조작되고 변형됨과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지배의 도구가 될 뿐이다.⁷²⁾ 이러한 정신의 지배는 타인의 존재와 권리를 부인하는 행위, 다른 이들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파괴하고자 하는 방식, 승리와 파괴의 개념의 동일화를 불러일으킨다.⁷³⁾ 이러한 배타적인 정신은 자기방어의 새로운 장벽을 쌓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 안에서 타인은 더 이상 존엄성을 지닌 인간이 아닌 그저 나와 상관없는 ‘그들’이 되어 버리고 만다.⁷⁴⁾

68)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견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신학적 고찰 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는 연대성을 강조하는 기본 정신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0, 82쪽.

69)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간추린 사회교리』, 195항.

70) 참조: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간추린 사회교리』, 194항.

71)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백주년」, 10항.

72)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4항.

73)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5~16항.

74)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27항.

이러한 현실 앞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시금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세계 공동체”⁷⁵⁾에 속해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비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이 질병이 지구 정 반대편의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공동의 문제가 되었음은 한 사람의 불행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오로지 함께”여야 하는 진리를 불러일으키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형제자매임을 가리키는 표지이다.⁷⁶⁾

본래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연대성은 인터넷과 컴퓨터 등을 필두로 하는 정보 기술의 진보, 무역과 정보 교류의 양적 증가 등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안에서 더욱 잘 발현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⁷⁷⁾ 그러나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들이 인간의 연대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오히려 증오와 파괴의 도구로 사용됨을 새롭게 바라본다. 익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세상 안에서 개인은 관찰 대상으로 전락하며 다른 이들을 증오하거나 파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이다. 또한 혐오와 약자에 대한 멸시 등의 개인주의가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교황의 의도 안에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무용하다거나 악 자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 연대성을 불러일으키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며 이에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사회성이 아닌 안정된 상호성과 우정, 몸짓의 언어, 침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⁷⁸⁾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공동의 미래를 건설하고자하는 노력과 다른 이들의 나약함에 대한 책임감에서 생겨난다. 이는 ‘봉사’라는 행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데, 다른 이들을 돌보고자 하는 노력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교육과 양성을 책임지는 많은 사람들의 봉사적 헌신이

75)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32항.

76)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32~34항.

77) 참조: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간추린 사회교리』, 192항.

78)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42항.

필수적이다. 특별히 가정은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첫째 자리이며, 교육이 이뤄지는 기관들 역시 자신들의 책임이 인간의 도덕적, 영적, 사회적 차원에 관련 되어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문화계 종사자들과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 역시 그러하다. 분명한 것은, 연대는 간헐적인 관대한 행위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이며 결국 공동체와 관련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빈곤과 불평등, 정의롭지 못한 사회권과 노동권 등의 구조적 원인들을 타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살아 있는 보편적 양심과 상호 관심이라는 불꽃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⁷⁹⁾

한편, 모든 사람은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해야 하며 온전함 발전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특정한 피부색, 종교, 재능, 출생지나 거주지 등에 따라 구분되거나 우선시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공동의 길을 망치는 일이다. 이는 결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적 이론이 아닌 연대를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가치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설사 어떠한 것이 사유화가 될지라도 그것은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발전을 촉진시키되 그것은 분명 다른 이들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⁸⁰⁾

3.2.2. 보조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란 교회에서 강조하는 사회 철학의 주요 원칙 가운데 하나로, 사회 교리 안에서 역시 가장 지속적이고 특징적인 지침 중 하나이다.⁸¹⁾ 구체적으로는 모든 상위 질서의 사회가 하위 질서의 사회들에 대해 도움의 자세, 즉 보조성의 자세를 갖춰야 하며 따라서 예측되어있는 소규모의 사회가 증진되고 발전되도록 상위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⁸²⁾ 물론 이것은 특정 형태의 중앙

79)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14~117항.

80)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18~123항.

81) 참조: 레오 13세, 회칙 「새로운 사태」, 22~25항.

집권화 혹은 관료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부당하고 과도한 개입을 장려하는 것 역시 아니다. 이는 오히려 사회의 권력 남용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개인 혹은 중간 단체들이 자신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고위 권력이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는 국가가 경제를 부흥시키는 상황, 더 큰 평등과 정의 혹은 평화를 위해 공권력이 정당하게 개입하는 경우 등이다.⁸³⁾

이에 교황은 선진국들의 과학, 기술, 의학, 산업, 복지 분야의 긍정적 진보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도덕의식과 역사의식의 저하, 정신적 가치와 책임감의 약화가 이뤄져 왔음을 기억한다.⁸⁴⁾ 보조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권력이 추구하는 이익은 오히려 새로운 패자를 만들고 정치 지도자들을 무능하게 만든다. 이 안에서 하위의 구성원들과 단체들은 뿌리가 없는 느낌, 아무 데도 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뿐이다.⁸⁵⁾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선동적으로 힘없는 이들을 착취하는 대중 연합주의, 권력자들의 경제적 이득에 일조하는 자유주의”⁸⁶⁾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사실은 초국가적 성격을 지닌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국가 정부들의 합의 아래 공정한 방식으로 위임된 권위로 제재의 권한을 지닌 강력하고 효과적인 국제 조직의 수립”⁸⁷⁾을 요청한다. 이는 보조성의 원리를 온전히 수행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국제기구를 뜻하는 것으로, 몇몇 나라들만이 취하고 있는 권력을 분배하고, 약소국들의 기본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⁸⁸⁾

한편 교황은 “정치가 경제에 종속되거나, 경제가 효율 중심의 기

82) 참조: 교황청 정의평화의위원회, 『간추린 사회교리』, 186항.

83) 참조: 교황청 정의평화의위원회, 『간추린 사회교리』, 187항.

84)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29항.

85)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52항.

86)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55항.

87)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72~173항.

88)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72~173항.

술 관료적 패러다임에 종속되지 말아야 한다”⁸⁹⁾는 사실을 강조한다. 정치의 위대함은 중요한 기본 원칙을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며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장기적 차원에서 공동선을 배려함으로써 드러난다. 경제는 부당한 압력, 제도 개혁과 조정을 이루어낼 수 없으므로 정치는 보다 독립적으로 하위 조직 혹은 구성원들을 위해 효과적인 발전 과정을 이뤄 나가고자 해야 한다.⁹⁰⁾

3.2.3. 재화의 보편적 목적

재화의 보편적 목적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주심으로써 노동으로 땅을 지배하고 열매를 따 먹도록 하신 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참조: 창조 1,28-29), 창조된 재화가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느님께서 온 인류에게 차별과 편애 없이 땅을 주셨으며 모든 구성원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지상 재화를 누리는데 있어 보편적인 권리를 지녀야 하며 이러한 권리는 모든 인간적 개입과 법적 체계, 경제 사회적 체계나 수단에 우선하는 권리이다.⁹¹⁾

교황은 회칙 안에서 이러한 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 강조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과도 연결되며 사실상 회칙 안에서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가난한 이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 혹은 이민자와 같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교황은 회칙 안에서 특별히 가난한 이들과 저개발 국가의 국민들, 이민자들에 대한 언급과 배려를 잊지 않지만⁹²⁾ 그밖에도 여러 위기에 처한 이들을 기억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에 대한 범위를 확장한다.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아직 쓸모없는 존재’

89)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77항.

90)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77~178항.

91) 참조: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간추린 사회교리』, 171~172항.

92)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37, 133, 151, 169항.

로 여겨지는 태아,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보여져 폐기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장애인과 노인 등이 포함되며⁹³⁾ 인종차별을 받는 이들,⁹⁴⁾ 남성과 동일한 존엄성과 권리를 지니지 못하는 여성, 특별히 부당한 대우와 폭력의 상황으로 이중의 가난에 처해있는 여성,⁹⁵⁾ “타인의 소유물로 전락되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받는”⁹⁶⁾ 인간 존재, 최신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인해 현혹되는 젊은 이들,⁹⁷⁾ 물질적인 편의를 누리면서도 영적인 공허함에 처해있는 현대인들 모두가 이에 해당된다.⁹⁸⁾ 이러한 견지에서 재화의 보편적 목적은 현대인들을 위해 시급히 재정의 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황은 회칙 안에서,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로 인식하고 포용하는 사회적 우애의 형태’를 특별히 강조한다. 이에 요구되는 것은 다름 아닌 정치적 애덕의 실천이다. 즉, 궁핍하고 가난한, 혹은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개인적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와 형제애를 위한 사회적 변화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⁹⁹⁾

이에 관해 교황은 애덕의 개념을 ‘우러나오는’(elicitio) 사랑과 ‘명령받은’(imperato) 사랑으로 분류한다. 우러나오는 사랑이란 개인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애덕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면에서 직접 흘러나와 유발되는 것이다. 한편 명령받은 사랑이란 보다 더 건전한 제도와 공정한 규칙을 세우고자 하는 애덕의 행위이다. 이 두 가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균형 있게 요청되는 것이다. 즉, 이웃을 돕고자 하는 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함께, 이웃이 애초에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 구조를 수립하는 것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¹⁰⁰⁾ 그러므로 교황은 개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

93)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8~19항.

94)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20항.

95)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23항.

96)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24항.

97)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24항.

98)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3항.

99)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80항.

함과 동시에 정치인들의 사회적 애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고통 받는 사람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애덕입니다. 고통 받는 사람들을 직접 알지 못하여도 그러한 고통의 원인이 된 사회적 조건들을 바꾸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애덕입니다. 누군가 연로한 어르신이 강을 건너는 것을 돕는다면, 이는 탁월한 애덕의 행동입니다. 한편 정치인은 그 강에 다리를 놓습니다. 이것 또한 애덕입니다.¹⁰¹⁾

이 지점에서 보다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이상의 두 가지 애덕의 결핍으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현실의 문제점들이다. 실제로 금융 투기가 식량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며 가격을 측정하는 동안 수백만 명은 굶주림의 고통으로 죽어간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한편에서는 상당량의 음식이 버려지고 있다. 또한 개념이나 이념에 관한 논쟁으로 사회가 사로잡혀 있는 동안 누군가는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도 못한 채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간다. 이러한 현대의 상황은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순진한 이상향’이 아닌 ‘고귀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¹⁰²⁾ 또한 이러한 사회질서는 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것이므로¹⁰³⁾ 각각의 개인은 자신과 자신의 단체의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서 벗어나 타인을 바라보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태도, 생활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¹⁰⁴⁾

100)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86항.

101)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86항.

102)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89항.

103)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 1858~1917)은 자살을 이해하려면 개인을 벗어나 사회, 특히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사회의 붕괴와 혼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조: Emile Durkheim(에밀 뒤르켐), 『자살론』, 김충선 역, 청아출판사, 2008, 129쪽.

104)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66~167항.

3.2.4. 공동선

앞서 다룬 회칙에서 드러난 세 가지의 사회교리 원칙들, 즉 연대성, 보조성의 원리, 재화의 보편적 목적은 모두 공동선을 위한 것들이다. 인간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동으로 누리는 선이 각각의 개인의 선이 된다.¹⁰⁵⁾ 이는 결국 타인이 없이 개인의 선이 이뤄질 수 없음을 전제한다. 실제로 인간은 다른 이들과의 만남이 없다면 홀로 존립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유대와 친교, 형제애가 있는 곳에 비로소 자신의 삶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황은 우리가 공동선에 대해 무관심할 경우 고독한 개인이 탄생 되므로 여기서 벗어나 ‘사랑할 구체적인 얼굴’, 즉 타인의 얼굴¹⁰⁶⁾을 향해 관심을 가질 것을 재차 강조한다. 이처럼 타인을 포함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돌보는 일은 결국 나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며 그러므로 모두는 하나인 ‘우리’를 이루어야 한다.¹⁰⁷⁾

한편 회칙 안에서, 공동선에 대적하는 현대의 정신은 ‘신자유주의 이론’과 ‘철저한 개인주의 문화’로 불리며 이는 교황의 신랄한 비판을 받는다. 신자유주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겨지며 ‘낙수 이론’(Trickle-down)¹⁰⁸⁾을 기반으로 한다.¹⁰⁹⁾ 그러나

105)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87항.

106) 이 ‘타인의 얼굴’ 개념은 프랑스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évinas, 1906~1995)의 주요 개념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얼굴을 인식함으로써, 혹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냄으로써 책임감의 관계를 맺고 적합한 자유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개념은 인간이 결코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다른 이들과의 열려있는 관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게 됨을 뜻한다. Cf. Emmanuel Lévinas, *Difficult Freedom: Essays on Judaism*,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², 9; 방종우, 「개인의 존재 안에서의 공동체성과 타자성: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을 중심으로」, 119쪽.

107)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7항.

108) 낙수 이론 혹은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는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전 세계 150여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오히려 하락하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한다는

이는 소수의 단기 이득을 겨냥하는 것이며 더욱더 큰 개인의 욕망을 부추김과 동시에 이것이 곧 공동선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을 줄 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개인의 이익이 모인다고 해서 온 인류 가족을 위한 나은 세상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개인주의를 “박멸하기 너무나 어려운 바이러스와 같다”고 천명한다.¹¹⁰⁾

이러한 기초 아래에서 교황은 다시금 ‘선’이 무엇이지를 재 정의한다. 이것은 경제적 발전도, 당장의 편의 혹은 이익도 아닌, “개인과 사회가 온전한 인간 발전을 증진하는 도덕적 가치”¹¹¹⁾이다. 이에 교황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선의(αγαθωσυνη)’(참조: 갈라 5,22)에서 그 참뜻을 찾는다. 이 그리스어는 선에 대한 애착, 선의 추구를 나타내며 다른 이들에게 가치 있고 좋은 것을 전달함과 동시에 물질적 행복만이 아닌 가치들의 함양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유사어인 라틴어 표현 ‘베네볼렌시아’(benevolentia) 역시 다른 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태도로서 다른 이들의 삶이 아름답고, 숭고하며, 유익한 것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는 현대 세계에서 발견되는 이기심, 폭력, 부패, 무관심, 개인의 이익 추구와는 정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가치이다.¹¹²⁾

이러한 선을 향한 공동의 목표 의식의 필요성은 이미 역사 안에서 풍성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세계적 인물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윤리적 요구 앞에서 우리는 모두 절대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이다.¹¹³⁾ 이는 교회의 사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교회는 공동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간 발전에 대한 염려를 통해 정신적인 힘을

결론을 통해 현재는 폐기된 이론이다. 참조: “낙수효과”, 『한경용어사전』,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6006>.

109)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68항.

110)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05항.

111)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12항.

112)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114항.

113)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209항.

다시 세상에 불러일으키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¹¹⁴⁾ 이에 교황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세상을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애의 이 여정에는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십자가 아래에서 이 보편적 모성을 받아들이시어 (요한 19,26 참조)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묵시 12,17)에게도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마리아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낳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이고, 우리 사회의 모든 버려진 이들을 위한 자리가 있으며, 정의와 평화가 빛날 것입니다.¹¹⁵⁾

4. 결론

오늘날 현대의 인류는 전례 없는 편의와 부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성장과 의학의 발달은 그동안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의 정반대편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로든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식적 측면의 갈증 또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원하는 물건을 굳이 가게에 가서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이웃과도 소통이 가능하다. 그야말로 양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과연 인간의 삶이 질적인 측면까지 풍요로운가에 대해 숙고해보면 선뜻 긍정의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Angus Deaton, 1945~)과 프린스턴대학교 명예교수인 앤 케이스(Anne Case, 1958~)는 공동 저서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한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자동차 수리비나 육아비 혹은 난방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114)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276항.

115)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278항.

수 있을 때 생활하기가 더 쉬워진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능력이 되는 이들에게는 뚜렷한 동기가 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다. 가난한 이들은 그들 자신의 가난을 견뎌내야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분명 필요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가진 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가난과 불평등의 세상은 민주적 통치를 훼손하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며 불안을 초래하고, 신뢰와 행복을 저해한다.¹¹⁶⁾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작금의 시대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베네딕토 16세(재위 2005~2013년)는 추기경 시절, 신앙교리성 문헌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 바 있다.

자연의 정복이나 사회적, 정치적 생활 또는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의 인간의 자기 지배에 관하여, 성취된 진보가 결코 인간 본래의 열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든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의 해방운동이 퍼져나가는 바로 그 시대에 새로운 위험, 새로운 형태의 예측, 새로운 공포가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하다.¹¹⁷⁾

회칙 「모든 형제들」 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재의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함과 더불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상은 분명 막연한 이상향으로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교황의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측 가능하며 심지어 우리가 이미 마주하기 시작한 절망의 시대가 더욱 가까워지리라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자살률의 증가,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의 증가와 같은 사회 지표적 문제와 개인적인 열등감과 경쟁심리에서 나오는 패배감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는 “사회의 일부가 마치 가난한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 마냥

116) 참조: Angus Deaton/Anne Case(앵거슨 디턴·앤 케이스),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 이진원 옮김, 한국경제신문, 2020, 204~206쪽.

117) 교황청 신앙교리성, 「자유의 자각」(*Libertatis Conscientia*, 1986), 10항.

행동하며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릴 때, 결국 그 여파가 따르기 마련”¹¹⁸⁾이라는 교황의 지적이 옳바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만든다. 또한 이와 동시에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9)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적인 타인을 향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에 앞서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7)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켜 봐야할 때이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인류를 위한 것이었으나 그것은 결국 부활이라는 공동의 영광을 성자에게 가져왔다. 이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수난을 통해 치욕과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아무런 말없이 수난의 상처들을 보여주신다(참조: 요한 20,20). 즉 사랑을 통한 승리의 상징들을 보여줌으로써 과거의 죄를 책망하거나 심판함 없이 제자들을 구원하고 사면시키신 것이다. 이로 인해 마침내 제자들은 사랑과 자비의 승리, 구원의 실현을 체험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형제애를 통해 당신의 치유와 용서의 힘과 사랑을 증거 하셨으며 이는 결국 제자들의 마음에 사랑을 불러일으켜 지속적인 선의 활동과 복음의 전파를 가능하게 하였다.¹¹⁹⁾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범은 우리가 먼저 사회에 귀 기울이고 보편적 형제애를 실천할 때 세상이 더욱 나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회칙의 내용은 현대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며 시급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는 내면의 목소리는 분리 상태를 극복하고 외로움의 감옥으로부터 나오하고자 하는, 스스로를 위한 욕구이다. 이와 함께 인간은 타인과 함께 선을 향하여 나

118)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219항.

119) Cf. Pietro Bovati, “L’esperienza del risorto”, *La civiltà cattolica*, 4003 (2017), 27.

아가게 되고 비로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참고 문헌]

1. 교회 공식 문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2002².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간추린 사회교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교황청 신앙교리성, 「자유 의 자각」(*Libertatis Conscientia*, 1986).
레오 13세,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1891).
비오 11세, 회칙 「40주년」(*Quadragesimo Anno*, 1931).
요한 23세, 회칙 「어머니요 스승」(*Mater et Magistra*, 1961).
_____,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
바오로 6세,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1967).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 1981).
_____,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
_____,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 1991).
_____,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 1995).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
프란치스코, 회칙 「신앙의 빛」(*Lumen Fidei*, 2013).
_____,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 Gaudium*, 2014).
_____,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
_____,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2016).
_____,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audete et Exultate*, 2018).
_____,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

2.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

- Francesco, “Visita a Lampedusa: Omelia del Santo Padre Francesco”(2013.7.8),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13/documents/papa-francesco_20130708_omelia-lampedusa.html(검색일: 2021.12.15).
_____, “Udienza Generale”(2013.6.5),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udiences/2013/documents/papa-francesco_20130605_udienza-generale.html(검색일: 2021.12.15).
_____, “Discorso del santo Padre Francescoagli studenti delle scuole gestite dai gesuiti in Italia e Albania”(2013.6.7),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3/june/documents/papa-francesco_20130607_scuole-gesuiti.html(검

색일: 2021.12.15).

_____, “Saluto del santo Padre Francesco al pellegrinaggio dei giovani della diocesi di Piacenza-Bobbio” (2013.8.28),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3/august/documents/papa-francesco_20130828_giovani-piacenza-bobbio.html(검색일: 2021.12.15).

_____, “Discorso del santo Padre Francesco alla comunità di Varginha (Manguinhos)”(2015.7.25),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3/july/documents/papa-francesco_20130725_gmg-comunita-varginha.html(검색일: 2021.12.15).

_____, “Discorso del Santo Padre Francesco ai partecipanti giubileo degli operatori di misericordia”(2016.9.3),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6/september/documents/papa-francesco_20160903_giubileo-operatori-misericordia.html(검색일: 2021.12.15).

_____, “Meditazione mattutina nella cappella della Domus Sanctae Martae: la vera libertà”(2018.4.13),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8/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80413_la-vera-liberta.html(검색일: 2021.12.15).

_____, “Lettera del Santo Padre Francesco al presidente della Pontificia Accademia per la vita in occasione del XXV anniversario della sua istituzione ‘Humana communitas’”(2019.1.6).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letters/2019/documents/papa-francesco_20190106_lettera-accademia-vita.html(검색일: 2021.12.15).

_____, “Discorso del Santo Padre Francesco ai partecipanti al Congresso ‘Child dignity in the digital world’”(2019.11.14),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9/november/documents/papa-francesco_20191114_convegno-child%20dignity.html(검색일: 2021.12.15).

_____, “Discorso del Santo Padre ai partecipanti alla Plenaria della Pontificia Accademia per la Vita letto da S.E. Mons. Vincenzo Paglia”(2020.2.28),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20/02/28/0134/00291.html#eng>(검색일: 2021.12.15).

Pontifical Academy for Life, “Rome Call for AI Ethics”, (2020.2.28), https://www.romecall.org/wp-content/uploads/2021/02/AI-Rome-Call-x-firma_DEF_DEF_confirme_.pdf(검색일: 2021.12.15).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0.

3. 단행본

- 서상덕, 『교황 프란치스코 — 당신의 사랑이 세상을 웃게 합니다』, 끌레마, 2014.
- Bergoglio, Jorge Mario/Skorka, Abraham(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아브라함 스코르카), 『천국과 지상』, 강신규 옮김, 올리시즈, 2013.
- Bunson, Matthew(매튜 번슨), 『교황 프란치스코: 그는 누구인가』, 제병영 옮김, 하양인, 2013.
- Deaton, Angus/Case, Anne(앵거스 디턴 · 앤 케이스),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 이진원 옮김, 한국경제신문, 2020.
- Durkheim, Emile(에밀 뒤르켐), 『자살론』, 김충선 역, 청아출판사, 2008.
- Gaeta, Saverio(사베리오 가에타), 『교황 프란치스코 — 새 시대의 응답자』, 강선남 옮김, 성바오로, 2013.
- Lévinas, Emmanuel, *Difficult Freedom: Essays on Judaism*,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².
- Tornielli, Andrea/Galeazzi, Giacomo(안드레아 토르니엘리·자코모 갈레아치), 『이놈의 경제가 사람잡네 —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한 사람들을 위한 자비의 경제학』, 최우혁 옮김, 갈라파고스, 2016.
- Vigini, Giuliano(줄리아노 비지니), 『교황 프란치스코, 자비의 교회』, 김정훈 옮김, 바오로딸, 2014.
- Woll, Kris, *Pope Francis: Catholic spiritual leader*, Abdo Publishing, Minnesota 2015.
- Zanzucchi, Michele(미켈레 잔추키), 『돈과 권력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회 정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4. 정기간행물

- 권기수 · 박미숙, 「아르헨티나 채무 디폴트 사태의 경제적 영향과 향후 전망」, 『KIEP 지역경제 포커스』 42(2014/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4쪽.
- 방종우, 「개인의 존재 안에서의 공동체성과 타자성: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214(2021/가을), 광주가톨릭대학교, 96~130쪽.
- Bovati, Pietro, “L’esperienza del risorto”, *La civiltà cattolica*, 4003 (2017), pp.16~28.

5. 기사 및 사전

Editorial, “The Guardian view on Laudato Si: Pope Francis calls for a cultural revolution”, *The Guardian*, 18 giugno 2015,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5/jun/18/guardian-view-on-laudato-si-pope-francis-cultural-revolution>(검색일: 2021.12.15).

“낙수효과”, 『한경용어사전』,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6006>.

국문초록

현대의 문제들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온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첫 번째 사회회칙인 「모든 형제들」을 발표하였다. 이는 선출 이후 회칙과 권고, 그 밖의 강론과 서한들을 통해 다양하게 표명해 온 그의 사회교리 정신들을 심화시킨 사회회칙이며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에게 요청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형제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키는 회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사회교리 회칙들을 바탕으로 하되 전통적인 사회교리 원칙들이 현대에 이르러 어떤 모습으로 적용되어야 할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세상이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회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모든 형제들」에 나타난 사회교리 원칙들을 통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들이 주목해 온 주제들을 분석하고 현대 사회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전 회칙과 발언을 통해서 나타난 교황의 주요 사상을 다루고 사회교리 원칙들이 「모든 형제들」에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회칙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통찰함으로써 전체적인 흐름 또한 짚어 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본 논문은, 「모든 형제들」에 드러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핵심적 가르침이 무엇인지, 전통적인 사회교리 원칙들이 현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또한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요청되는 소명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시도하였다. 한편 이 회칙은 형제애에 관한 교리를 단순히 요약하는 것이 아닌, 형제애의 보편적 차원과 모든 이에 대한 개방성을 다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회칙 전체가 ‘선의를 모든 이와 나누는 대화를 위한’ 교황의 초대인만큼, 그리스도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들에게도 유의미할 것이라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형제들」을 통해 부의 불평등, 새로운 가난한 이들의 탄생, 정서적 고통 등에 대한 현대의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연대성, 보조성의 원리, 재화의 보편적 목적, 공동선 등의 사회교리 원칙들이 다시금 올바로 수행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현대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며 시급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모든 형제들, 사회교리, 교황 프란치스코, 공동선, 연대성